잠언 강해(106) 06/21/2020

사람들의 외모

말씀: 잠언 28:20-28
요절: 잠언 28:21

오늘 잠언은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외모라고 번역된 말은 **'person'**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외모가 좋다, 외모**가 빼어나다, 인물이 좋다, 인물이 별로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됨됨이, 인품, 성격, 재능, 소유, 기질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시고, 그 행동을 보십니다. 시편 39: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시39:5).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 인품, 성격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용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고 용기있는 사람같이 보였고 행동했지만 여종의 한 마디에 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에 위기가 닥치자 기꺼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 부르며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파라오, 아비멜렉). 사람의 인격, 인품이란 것이 참으로 별 볼일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좀이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시39:11). 사람은 가장 위대한 순간, 뛰어난 순간, 탁월한 순간이라 해도 그 사람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62: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시62:9).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해 보십시오. 그들을 다 더해서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민12:3). 그런데 모세는 혈기, 분노를 못 이겨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의, 곧바름, 완전함이란 실제 달아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 성품에 대해 말하지만 사람의 인격이란 것이 한 조각 빵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❶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신1:17). 주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욥13:10). 외모를 중시하면 주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잠24:23)

❷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

여 범법하리라.”(잠28:21).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보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시대의 영웅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파렴치한 범죄자일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속마음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하며, 사람 속에는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레19:15).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사실 욕심이 없어 청렴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❸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욥13:10). 우리는 은밀히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려 합니다. 인간 관계가 얽히다 보면 더 이익이 되는 사람, 더 가까운 사람,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용납합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떤 이는 강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이들은 약한 자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약한 자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모두 외모를 용납한 결과입니다. 욥기 32:21절,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욥32:21).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외모를 용납하고 치우칩니다. 욥기 34: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욥34:19)

❹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란 말도 합니다. 외모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시82:2). 우리는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잠18:5). 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아니하였느니라.”**(갈2:6).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뭔가 되는 것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사실 자신에게 아무 것도 더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14절,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막12:14). **“선생님은.....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란 말씀대로 주님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시고 외모를 중히 여기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구조, 체질,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20). 구약에서 신실한 자의 대표로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주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

한 자니라.”(민12:7)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이니이다.”**(삼상22:14)란 평을 들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복이 넘칩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를 보존하십니다(시31:23). 신약에서 신실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딤전1:12). 하나님은 바울은 신실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신실한 자는 감독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은 유능하거나 똑똑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딤전3:11).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딤후2:2). 크리스천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20).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게 하는 일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고,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땅에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시기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사사들을 보면 예외없이 거의 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구약과 달리 땅이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죄라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나 의가 아니듯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나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마19:23),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막10:25)는 말씀이 부자를 저주하거나 악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재물을 신뢰할 때,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20)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잠23:4).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죄를 짓습니다. 젊을 때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빈 손 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다가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재물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21).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골3:25).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나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약2:1).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고 범법자로 확정됩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약2:9). 사람의 본질, 실체를 안다면 사람이 인생에서 취한 어떤 업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공자도 사흘 굶으면 ***남의 담을 타**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지만 **"...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21)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작은 자존심을 위해 살인할 수도 있고, 작은 욕심으로 인해 음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위해 범법했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인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자존심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은 잠깐 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자기 부하의 부인과 음행을 저질렀고, 지혜의 대왕이라는 솔로몬은 아내들로 인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사람의 외모입니다.

22절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22). 20절에서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죄하지 않다고 했는데 22절에서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탐욕으로 인해 멀어버린 눈, 어두워진 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악한 눈이란 정욕에 이끌리는 눈을 말합니다. 악한 눈은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나병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궁핍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11절,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빌4:11).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딤전6:6). 성경은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딤전6:8)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을 꿈과 야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빌4: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3:5).

23절입니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23). 사람을 꾸짖는 자락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웃는 자를 꾸짖으면 자기가 수치를 당합니다.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힙니다(잠9:7).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정죄하고 꾸짖는 일은 옳은 일이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잠24:25). 요즘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행(飛行)이나 부패, 부정, 비리를 보면서도 꾸짖지 못하고 아첨을 떱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현상은 동일합니다. 주류 언론들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을 꾸짖는 일이 언론의 역할이지만 아첨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23). 사람을 꾸짖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이나 현 세상에서가 아니라 먼 훗날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언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 역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감독할 뿐 아니라 꾸짖어야 합니다. 그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습니다(23). 잠언에 말하기를,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27:5)고 말합니다. 물론 책망을 듣는 이들은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암5:10).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24). 이것은 성경의 효도법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데 ❶ 순종하라 ❷ 공양하라. ❸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골3:20).

성경의 효도 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형벌 규정이 음행이나 살인 못지않습니다.

❶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존속 상해만으로도 사형이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1:15). 이는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으로 삼는 유교에서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❷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레20:9).

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27:16).

❹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잠20:20).

❺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 범법이 아니라고 하면 파멸시키는 자의 벗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잠28:24).

❻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롱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지 말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 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잠30:17).

25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25).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인가? ❶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❷ 몹시 노하는 자입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잠15:18).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다혈질, 욱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참을 것, 좀 더 참았더라면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하는 자, 성내는 자는 다툼과 더불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잠29:22). ❸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26:21). ❹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딤후2:23).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의를 선포하면 세상을 뒤엎는 자가 되고 소란

케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를 제외하고서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롬12:18). 내 안에 주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주 예수님은 평강의 주(主)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툼, 불화, 전쟁, 싸움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납니다(약4:1).

다시 25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25). 사람의 몸이 기름지게 되는 일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영과 혼이 기름지게 되는 일은 음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뼈가 마르고, 몸에는 빈혈이 일어나더라도 영과 혼이 기름지게 된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주의 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기름지게 되는 성경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❶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됩니다.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잠11:25).

❷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됩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잠 13:4).

❸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잠15:30).

❹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잠28:25). 주를 신뢰하는 자는 마음이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시34:22).

❺ 주께서 택하신 금식을 할 때 그는 기름지게 됩니다.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샘 같으리라."**(사58:11).

26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26).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와 더불어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는 선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뭔가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현실에서 자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26).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걷는 자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를 신뢰하면 당연히 그는 구출됩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27).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란 구제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잠언 14: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잠14:21). 가난한 자에게 주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잠언 22:9절,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잠22:9).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집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시112:9).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행20:35).

"...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27).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28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28). 사악한 통치자, 독재자, 폭군 등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으로 빠져듭니다. 사람들의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가 막히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28). 나찌나 파시스트가 득세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숨었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때는 의인들이 도망하거나 숨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28).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납니다. 후세인이 죽었을 때 이라크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동상을 넘어뜨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가다피가 죽었을 때 리비아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납니다. 폭정이 끝나면 그 땅에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